

李정부 출범... 전북도정 새 전환점

김관영 도지사 “민생 회복 · 신산업 육성 등 현안 흔들림없이 추진... 새정부와 협력 이끌어내겠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체제의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전북도정의 새 전환점을 선언했다.

4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지사는 민생 회복, 신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전북자치도의 현안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그는 이제 여당 소속 도지사로서 새 정부와의 협력을 적극 이끌어내 전북 발전의 실질적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김 지사는 새 정부 국정 과제에 대한 기대를 전하며, 민생 경제의 복원과 지역 균형 발전이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회복 없이 미래는 없다”며, “전북형 신산업을 속도감 있게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날카로운 진단과 해법을 내놓았다.

국제 수입 감소로 위축된 지방교부세 현실을 언급하며, 시도지사들과 힘을 모아 교부세 증액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 연장선에서 전북 관련 대선 공약, 특히 재생에너지 산업과 새만금 개발,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 등이 반드시 정부 차원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전북 출신 인사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4일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도정의 새 전환점을 선언했다.

내각 · 고위직 진출을 통해 지역 대표성과 정책 실현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대선 기간 중 수차례 인제 추천 작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새 정부에서는 과거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SOC와 교통망 확충 문제도 핵심 의제로 다뤘다.

그는 새만금 내 SOC 사업의 예타 면제를 강력히 주장하며, 전주-대구 고속도로, 전주-김천 철도, 전주권 광역교통망 등 오랜 숙원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약속했다.

“길이 열려야 사람이 모이고, 산업이

자리 잡는다”는 그의 말엔 뚜렷한 방향성과 결기가 담겼다.

전북이 추진 중인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올림픽은 단지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K-컬처 수도로서 전북의 정체성과 미래 인프라를 재정립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역설한 그는, 특별법 제정과 국무총리 주관 유치 추진 체제 마련 등을 통해 범정부적 추진을 끌어내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새만금 해수 유통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희망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조력 발전 연계 방안 등을 바탕으로 수상 태양광, 해상풍력 등 전북의 미래형 산업이 본 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놴다.

또한 그는 “지방 소멸은 수치가 아니라 절박한 현실”이라고 토로하며, 청년 유출과 인구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가적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서울대 수준의 ‘거점국립대 10곳 육성’ 같은 파격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교육 기회의 전국 균형 분산이자, 수도권 쏠림 해소를 위한 구조적 해법으로 보인다.

전주-완주 통합 문제도 다시 꺼냈다.

그는 대공법 통과, 전주 하계 올림픽 후보지 선정 등 새로운 사정 변화 속에서 “이제는 완주 군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설득의 기회를 제공할 때”라고 했다.

6월 안으로 완주군을 방문해 군민을 설득할 것이라는 계획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 전북의 공공의대는 다른 지역의 국립의대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상식선에서 충분히 해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 간담회를 통해 그간 묵시있게 추진하고 있는 도정의 철학과 방향을 조리 있게 기자들에게 설명하며 최선을 다해 도민 신뢰에 보답하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자세를 분명히 했다. /이만호 기자

“이재명의 승리, 도민의 승리”

민주 김윤덕 사무총장, 도민께 감사 인사 전해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전주갑 국회의원)은 3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이재명 후보의 승리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승리”라며 도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12·3 내란으로 무너졌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것은 바로 전북도민”이라며 “여의도, 광화문, 종남문 광장 등지에서 함께 싸운 도민들의 헌신 덕분에 오늘의 승리를 이룰 수 있

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전북의 희망은 외면당했고, 지역경제는 천체에 빠졌다”며 “민생 회복과 전북 경제 부활을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사무총장은 “새만금, 공공의대, 신재생에너지, 첨단농업, 올림픽 유치, 광역교통망 구축 등 그간 멈춰 있던 전북의 숙원 사업들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겠다”며 “전북의 자존심을 지키고, 잘사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 모든 민주당 인사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만호 기자 · 권희성 기자

“위대한 도민의 선택, 새로운 전북의 시작”

민주 도당, 오늘 이재명 대통령 당선 관련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대책위원회(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 이원택)는 5일 오전 9시 40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 될수있도록 지지를 보내주신 전북 도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의 전북 발전과 민생회복을 위한 의지를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이번 승리는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도민의 뜨거운 참여와 지지가 모여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며, ‘전북도민의 열원과 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전북특별자치도 7대 주요 공약과 78개의 시군별 공약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도당과 전북 국회의원들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는 전북자치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거대책위원장단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도,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예방접종 · 수칙 준수 독려

전북특별자치도가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예방접종 참여를 독려하고, 도민들에게 일상 속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태국, 싱가포르 등 인접 국가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상황은 현재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이나 지난 2022~2024년 여름철 유행 사례를 고려하면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당초 지난 4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코로나19 예방접종 기간을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연장했다.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층(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이다.

아울러, △호흡기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의 실천도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도민께 감사드립니다”

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전주병 소속 시·도의원과 당직자들이 종합경기장 사거리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관련, 도민에게 감사인사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머지않아 장마철... 도, 재난 취약지역 현장점검 나서

노홍석 행정부지사, 익산 산북천 · 금강유람선 운영 현장 찾아 수해 예방 조치 등 확인

전북특별자치도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도는 노홍석 행정부지사가 4일 익산시 망성면 산북천 일원과 금강유람선 운영 현장을 찾아 수해 예방 조치와 안전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5일에는 무주군 부남면 산불피해 지역을 방문해 산사태 위험성과 우기 대비 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

익산 산북천 일대는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집중호우로 비닐하우스 9,200여 동, 농경지 2,649ha가 침수돼 총 11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상습 침수지역이다. 도는 해당 지역에 배수장을 신설하고 하천 정비 및 추가 침수 예방 공사를 진행 중이다.

현장을 찾은 노 부지사는 공사 진척 상황을 꼼꼼히 살핀 뒤 “기록적인 폭우에도 인명피해 없이 대응한 지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도 사전 점검과 철저한 대비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4일 익산시 망성면 산북천 일원과 금강유람선 운영 현장을 찾아 수해 예방 조치와 안전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다.

또한 이날 노 부지사는 지난 4월 운항을 시작한 금강유람선 ‘곰개나루호’의 안전관리 상황도 직접 점검하며 현장 관계자들에게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교량, 공동주택,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1,457개소에 대해 집중 안

전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작년 기록적인 폭우에도 신속한 대응 덕분에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올해도 선제적 재난 대응 체계를 더욱 철저히 갖추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도, 2025년 예비수소

전문기업 15개사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가 수소산업 전환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도내 유망 중소기업 15개사를 ‘2025년 예비수소 전문기업 지원사업’ 대상 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진행된 모집 공고에 총 20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이 중 서류 및 대면평가를 통해 기술력, 수소산업과의 연계 가능성, 사업화 전략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15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 과정은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했으며, 5월 22~23일 양일간 평가가 진행됐다. 이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이 최종 확정됐다.

선정된 기업에는 기술사업화, 판로개척, 전문가 컨설팅 등으로 구성된 패키지형 프로그램과 함께 기업당 최대 5천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도는 이들 기업이 향후 산업부의 공식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로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권영국 득표 아쉽지만, 진보정치 새 출발점”

민주노동당 도당

민주노동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오현숙)은 4일 논평을 통해 “권영국 후보의 득표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지만, 이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국 득표를 0.98%, 전북에서는 0.81%를 기록했다.

도당은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 열망이 컸던 만큼 결과를 인정한다”면서도 “권영국 후보에게 보내주신 한 표 한 표는 진보정치의 소중한 씨앗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 많은 시민들이 진보정당의 진정성을 격려해주었고, 선택은 다르더라도 우리에게 힘이 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은 노동 · 시민 · 사회단체와 함께 ‘사회대전환대선전북선대위’를 구성해 공동 대응했다. 도당은 이를 통해 “전북에서도 진보정치의 가능성을 확인하겠다”고 평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민노당 전북도당은 “도민들의 지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만호 기자

남원시의회, 정례회 준비 한창

남원시의회 의원들이 제273회 정례회를 앞두고 자료 분석을 위해 열정으로 준비하며, 정례회 기간 집행부의 견제 · 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의회는 10일부터 18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제1차 정례회가 진행,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 △2024년 세입 · 세출 결산내용 등의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며 정례회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사업의 실효성 분석을 위해 의회 전문위원들과 문제점 및 대안 마련에 몰두하고 있으며, 정책지원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조례인의 법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